

## 研究發表

# 李退溪哲學에 있어서 理氣不可分の意味

慶北大 副教授 宋 兢 燮

### I. 序 論

理氣哲學에 있어서 理와 氣의 相互關係를 規定함에 있어 兩者를 不可分, 不可離 또는 未嘗離 등으로 表現한다. 이 三者 中 그 어느 것이든 間に 理와 氣의 兩者는 分離되지 않는다는 意味인데 이러한 表現은 南宋의 朱子以來 理氣哲學을 論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用語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늘에 있어서 理氣哲學을 理解하는데는 이 不可分の 意味와 아울러 退溪에서만 볼 수 있는 「理先」의 意味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理由는 不可分을 만일 必然的인 關係로 解釋할 경우 因果法則的인 關係가 되어 自然히 決定論的인 見解가 固守되게 되며 이어서 決定論的 立場에서는 意志의 自由를 認定할 여지가 없으니 道德의 成立이 不可能하게 될 것이고 理先은 이 不可分과 根本的인 關係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周知하는 바와같이 理氣哲學 즉 性理學은 日常生活 속에서의 實踐問題를 主旨로 하기때문에 道德問題와는 밀접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어서 나는 李退溪哲學에 있어서 理氣不可分の 意味가 무엇인가를 再考察하여 李退溪哲學의 眞粹를 把握하기 위한 一助로 하고자하는 것이다.

理氣關係의 「不可分」은 理氣의 狀態와 性格의 面으로 考察되어야 할 줄 생각한다. 狀態面으로는 理와 氣가 個個로 分離되지 않는다고 할 때 다시 두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其一은 理氣 中 어느 一者에 더 主要性を 認定하여 理를 氣에 從屬시키거나 氣를 理에 從屬시키는 主從關係도 不可分이 된다. 이러한 主從關係는 價值的인 輕重이지 결코 時間的인 先後關係가 아니다. 따라서 主從的不可分에도 理와 氣는

同時共在함은 물론이다. 흔히 主氣說이니 唯氣說이니 하는데서의 理氣關係는 이러한 主從關係에 속한다.<sup>(1)</sup> 其二是 理氣 어느 一者에도 輕重을 두지 않는 平等關係로서의 不可分이며 李退溪哲學에서의 理氣說은 이 平等關係에 속한다.

主從의 關係에서나 平等한 關係에 있어서 다 같이 理와 氣가 共在한다는 思想은 近世에 와서 形成된 것이었다. 古代儒家가 太極에서 萬物이 生成한다고 한 生成論과 같이 時間的으로 先在하는 太極으로부터 萬物이 生한다는 太極이 萬物속에 共在해 있다는 太極 즉 理로 된것은 近世에 와서 思想가 轉換한데 비릇된다. 다시 말하면 古代에서는 生成過程의 說明이던것이 近世에 와서는 生成原理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이렇게 思惟의 轉換으로 말미암아 理와 氣는 萬物生成의 原理로 되었는데 理氣를 狀態的으로 본다면 以上과 같이 同時共在한다는데는 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理氣를 性格上으로 把握할때 「不可分」에는 問題가 생긴다. 周知하는바 理는 「所以然之故 所當然之則」으로서의 이른바 主宰者이며 氣는 生成變化하는 萬物の 世界라고 함이 定理이다. 그런데 理가 「故」 및 「則」으로서 主宰者의 性格을 갖는 以上 理가 萬物(氣)에 대해서 不可分の 關係가 될때 그 不可分은 因果法則의인 必然의 意味를 갖는다고 보게 된다. 여기서 理와 氣의 關係가 과연 必然的이겠는가 하는 것을 檢討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그 關係를 必然的으로 規定하는 先儒가 意外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sup>(3)</sup>

(1) 主氣說의 代表的인 學者는 徐花潭인데 花潭은 「理氣說」(花潭集卷二雜著)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氣外無理, 理者氣之宰也, 所謂宰非自外來而宰之, 指其氣之用事, 能不先所以然之正者, 而謂之宰, 理不先於氣….

(2) 宋婉變의 論文「退溪哲學에서의 理氣關係와 理先問題」參照.  
(慶北大退溪研究所刊「韓國의 哲學」第5號 所收 1977. 3.)

(3) ① 奇高峯은 理氣關係를 因果法則的으로 보는 傾向이 強하다. 「哲學研究」第13輯 所收 宋婉變의 論文「奇高峯의 己未問書考察」參照(韓國哲學研究會刊 1973. 5).

② 李退溪는 奇高峯의 第1問書를 받고 答書에서 奇高峯이 理氣不可分을 너무 強調했다고 하였다. 이 點으로서도 奇高峯은 不可分을 必然的으로 解釋했다는 意味가 있다. 退溪의 그 本文은 다음과 같다.

竊詳來喻之意, 深有見於理氣之相循不離而主張, 其說甚力. (退溪先生文集卷十六答奇明彥=非四端七情分理氣辯)

本稿에서는 이미 提示했드시 李退溪가 말하는 理氣關係의 不可分은 必然的이나 또는 必然的이 아니나의 究明을 主眼點으로하여 以下에서 推論해보기로 한다.

## II. 理氣三定則

李退溪가 내린 理氣의 關係는 한마디로 하면 理와 氣는 「同時共在」라고 規定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規定은 다음 句節에서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理와 氣는 같은(同) 가운데의 다름(異)이 있음(同中異)을 알고 다른 가운데서 같은(異中同)이 있음을 알고, 나누어 둘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는데가 있고(未嘗離) 습하여 하나가 되어도 그 內容에 있어서는 섞이지 아니한 것이 있고(不相雜) 서로 한 쪽에 치우침이 없게(無偏)되는 것입니다.<sup>(4)</sup>

이 文章은 門人 奇高峯(中宗22年 - 宣祖5年 1527~1572)과의 사이에 展開된 이른바 理氣問答에서 李退溪가 보낸 第二答書의 一節이다. 윗 글의 前段에 있는 同中異의 「同」은 理氣가 共在하고 있는 同이니 事物을 指稱하며 그 事物을 共同의 場으로하여 理는 理로서 氣는 氣로서 共在함을 意味한다. 理氣가 融合統一되어 事物이 成立되는 것이 아니라 理는 理로서 氣는 氣로서의 自己 分을 지니며 理氣보다 높은 次元으로 가는 共在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와같은 높은 次元으로 統一되지 않음은 그 윗 句인 異中同이 있기때문에 더욱 명백하다. 理와 氣가 自己 分을 지니는 「異」이지만 兩者가 共在할 때는 이미 事物이 成立된다는 意味가 異中同이라고 解釋된다. 이 두 句인 同中異와 異中同은 同一對象

③ 栗谷에 있어서도 理氣不可分을 必然的으로 解釋하는 傾向이 强하다. 다음에 한 句節만 引用해둔다. (栗谷集卷五答成浩原)

雖聖人之心。未嘗有無感而自動者也。必有感而動而所感。皆外物也。何以言之。感於父則孝動焉。感於君則忠動焉。感於兄則敬動焉。父也君也兄也者。豈是在中之理乎。天下安有無感而由中自發之情乎。…今若以不待外感。由中自發者爲四端。則是無父而孝發。無君而忠發。無兄而敬發矣。豈人之眞情乎。(譯文은 本稿結語 參照)

(4) 退溪先生文集卷十六答奇明彥

就同中而知其有異。就異中而其有同。分而爲二。而不害其未嘗離。合而爲一而實歸於不相雜。乃爲周悉而無偏也。

을 事物에서 본 경우와 理氣에서 본 경우 즉 生成過程과 生成原理面에서의 兩面表現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결국 同中異와 異中同은 理氣는 不可分이오 同時共在한다는 說明인 것이다. 이에 관해 退溪는 또 簡潔하게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다. 즉

天下에 氣없는 理가 있지 아니 한즉 氣는 떨어지지 않습니다.<sup>(5)</sup>

理氣가 共在하는 까닭에 後段의 未嘗離 不相雜이라고 함은 論理上 당연한 歸結이다. 그러나 「無偏」에는 이 두 概念과 다른 매우 중요한 意味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理와 氣兩者의 價值的인 判斷이기 때문이다. 上述한 바 理와 氣를 狀態의으로 본다면 共在이지만 狀態의 關係가 아닌 性格面 즉 價値面으로서의 兩者關係로는 달리 規定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理와 氣에 價值的인 輕重의 偏向이 없다고한 判斷이 無偏인 것이다. 이리하여 理氣關係는 未嘗離 不相雜 無偏이라고 規定한데서부터 理氣는 同時共在하면서 價值的인 偏重이 없다고함을 알수 있겠다. 이와같은 未嘗離 不相雜 無偏을 李退溪의 「理氣三定則」이라 해두고자 한다. 우리는 李退溪哲學에서 理氣關係를 論함에 있어서 이 三定則이 그 基本이 됨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李退溪는 이 三定則을 基底로하여 萬物存立의 原理를 導出하고 있다.

天下에 理없는 氣없고 氣없는 理가 있지아니 합니다.<sup>(6)</sup>

이와같이 理와 氣가 同時共在하지 않는 萬物은 없는 것이다.

李退溪는 萬物을 理氣共在에 의해서 存立하며 따라서 天下의 모든 것에는 例外를 두고 論할수 없음을 定言하였다. 말하자면 「理없는 氣없고 氣없는 理없다」가 萬物이라는 現象說明의 大前提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大前提를 가지고 論하는 限에 있어서는 그 推論은 演繹의 이 될 수 밖에 없다. 演繹의 論理에 의하면 全體에 관하여 眞인것은 部

(5) 上同文集續具卷八雜著  
理外無氣, 氣外無理, 固不可斯須離也.

(6) 上同文集卷十六答奇明彥  
天下未有無異之氣, 亦未有無氣之理.  
이와 同一한 句가 性理大全에도 보임.

分에 관해서도 眞임을 原理로 하고 있어서 演繹하는 前提속에는 벌써 結論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演繹的論理는 結論을 保障하는 그러한 論理인 것이다. 李退溪가 萬物存立에 例外가 없다고 하는 理없는 氣 없고, 氣없는 理가 없다는 理氣共在의 前提에는 天下의 모든것은 理氣로 成立되지 않음이 없다는 結論의 確知가 그속에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天下之物이니 萬物이니 하는 이른바 「天下의 모든 것」을 物이라고 하는가답에 現代的 紐앙스로서는 有形的인 事物로 받아 들이기 쉽다. 그러나 物의 概念은 有形的인 것만이 아니라, 無形的인 것까지를 包含한다. 다시말하면 感應이나 觀念의 世界까지도 이 「物」로 表現한다.<sup>(7)</sup>

이를테면 四端, 七情, 天地之性등도 物의 概念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李退溪는

四端到 氣가 없는 것이 아니며 七情에 理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sup>(8)</sup>

라고 한 것이다. 四端到 氣가 있다고 하는 것은 一見意外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것은 四端은 善이니까 理요 七情은 惡으로 흐르기 쉬우니까 氣라고 한다는 常識에서 본다면 四端到 氣가 있고 또 七情에 理가 있다고 하는데는 놀라움마저 갖게 된다. 그러나 論理的으로는 上述한 바 前提에는 結論의 確知가 있다는 演繹的推論에는 如何한 것에도 例外가 存在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며 그런 까닭에 四端到 氣를 排除하지 아니하고 七情에 理를 是認하는데 矛盾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物의 概念을 가지고 說明한 몇가지 例를 다음에 들어보기로 한다.

.天地之性은 오로지 理만을 가리켰다는 데 여기에는 理만 있고 氣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sup>(9)</sup>

奇高峯에게 보낸 答書의 한 句節인데 「理만 있고 氣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고 한데서 理氣에 의해서 天地之性은 成立된다고 하였다. 그 時 奇高峯의 答書에 對하여 李退溪는 如上의 對答를 하였다.

(7) 「物」의 概念에 관해서는 宋兢堯의 論文「李退溪哲學에 있어서의 理氣共在의 原則」參照(上同 退溪研究所刊「韓國의 哲學」第3號 1976.12)

(8) 上同文集卷十六答奇明彥(論四端七情第二書):夫四端非無氣, 七情非無理.

(9) 退溪先生文集卷十六答奇明彥 上同

天地之性專指理, 氣質之性理與氣라는 問議에 대하여 退溪는 混謂天地之性 固專指理, 不知此際只有理, 還無氣乎라고 하였다.

天地之性은 理만을 指稱하며 氣質之性은 理와 氣가 함께 있는 것이니 天地之性을 理之發이라 함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만 氣之發은 다만 氣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sup>(10)</sup>

奇高峯의 觀點은 天地之性은 理단이고 氣質之性은 理氣共在한다는 데있다. 李退溪는 「三定則」으로 理氣 어느 一者의 單獨性을 否定하고 있고 그 三定則의 本質이 演繹의 論理이기 때문에 天地之性만이 理 單獨으로 存立할수 있다고 하는 例外는 있을 수 없다. 奇高峯의 觀點은 이렇게 誤謬를 犯하고 있기때문에 理만 있고 氣는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라고 敎示한 것이다.

도리켜본다면 明宗 14年己未(1559年)에 李退溪에게 보낸 奇高峯의 質問書(第一書)에서 『天命圖』의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이라고한 退溪의 說明句가 잘못이라는 斷定은 실은 理와 氣는 떨어질 수 없다는 「不可分」에만 熟知하였을뿐 萬物은 理氣共在로 存立한다는 物의 概念과 演繹의 論理에 結論의 確知가 包含된 推論이라는 데는 미쳐 미치지 못한데서 온 過誤였다. 李退溪의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로 된 命題의 「理之發」은 理氣共在하는 가운데서의 理이며 「氣之發」도 역시 理氣가 共在하는 가운데서의 氣이지 결코 理나 氣를 單獨의 存在로 認定함이 아닌것이다. 불과 十個字로 된 이 命題에는 上記 三定則이 그 基底에 있는 것이다.

### Ⅲ. 理의 由來(理先)

李退溪哲學에서의 理와 氣는 그 어느 一者의 單獨性을 否定하고 어디까지나 兩者 同時共在하는 不可分の 關係였다. 그와같은 關係를 三定則으로 規定하였고 이러한 規定을 基底로하여 理없는 氣없고 氣없는 理없다는 萬物存立의 原理가 樹立되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理氣關係에는 同時共在以外 다른 餘地는 全無하다.

(10) 退溪先生文集卷十六答奇明彥(論四端七情第二書)附  
天地之性專指理, 氣質之性理與氣, 雜是理之發, 固然是氣之發, 非專指氣.

그런데도 不拘하고 李退溪의 理氣說에는 「理先」의 概念이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理先이란 理는 氣보다 先在한다는 뜻인데 門人 鄭子中(惟一, 號文峰)에게 보낸 答書 가운데 이러한 「理先」의 概念을 볼 수 있다.

事物이 있기 前에 먼저 그理가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君과 臣이 아직 있기 前에 이미 먼저 君臣의 理가 있고, 父와 子が 있기 前에 이미 먼저 父子의 理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理가 없다면 곧 君臣과 父子가 있기를 기다려서 道理를 가져다 그속에 넣을수 없습니다. 事物이 아직 있지 않을 때 이 理가 이미 갖추어 있는 것이니 그뒤에 適用하는것이 다만 理인것 뿐입니다. (11)

라고 한데서 「理先」을 確實히 認定하고 있다. 理先이 氣에 先在하는 理일진데 理氣共在와는 正面으로 相衝된다고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上記三定則은 無意味하게 된다.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李退溪說을 「理先氣後」라고 斷定하여 理氣不可分의 定理에 어긋난다고 하게 된다. 위 例文은 바로 그러한 攻擊을 받게되는 句節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李退溪가 理先을 公然히 敘述한 그 眞意가 무엇인가를 再考察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위의 例文을 가지고 이 問題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매우 平易한 文章인데 分析해 보면 두 대목에 注意를 갖게 한다. 其一은 君臣이나 父子가 있다는 現象以前에 理가 있다고 한 점과 其二는 그러한 現象이 있기를 기다려 그 속에 그 理를 넣어준다고 한점이다. 現象 즉 氣以前에 이미 存在하는 理는 氣와 關係지워져서 비로소 理氣가 共在하게 되며 따라서 그 理에 의해서 氣로 成立된다. 여기서 分明해진것은 氣와 共在하는 理의 由來이다. 氣보다 앞서 太初부터 있는 原理로부터 由來하니까 氣와 共在하는 理는 論理的인 想定도 아니요 抽象的인 假定도 아닌 實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서 所以然之故 所當然之則의 性格이 주어져 主宰者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所以를 李退溪는 究明定

(11) 退溪先生文集卷二十五答鄭子中

未有事先有這理，知未有君臣，已先有君臣之理，未有父子，已先有父子之理，不成立無此理，直待有君臣父子，却旋將道理入在這裏面，未有事物之時，此理已具，少間應，處只是此理。

立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理에 대한 認識에 의해서 理는 變함없이 存在하지만 氣와 關係되지 않았을 때와 關係되었을 때로의 識別이 可能해졌다. 氣와 有氣의 理이든 無關의 理이든 間에 理自體가 갖는 性格에는 아무런 變함이 없다. 그러나 氣와의 無關으로 單獨히 存在하는 理는 空虛하다 할수밖에 없다. 그것은 李退溪가 氣와의 共在로 즉 有關의 理가 되어서 비로소 萬物存立의 原理로 될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있기를 그다려 그 속에 넣는다」고 한 表現이 이러한 意味이다. 따라서 理는 어디까지나 氣에 대한 理이며 氣없는 單獨의인 理가 「理先」인 것이다.

생각컨데 自然속의 原理는 아득한 太初부터 存在해 있다. 現代에 있어서 發達된 科學文明은 人間이 太初부터의 自然法則(原理)을 發見하여 그것을 應用하고 活用함으로써였다. 如何한 手段을 통했건 自然속의 法則이나 原理를 發見했다는 이 事實은 오늘날의 科學文明을 이루어 놓은 源泉이었음을 아무도 否定할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未來로 向하여 科學이 發展해 가는 基底에는 새로운 自然法則이 發見되고 그것을 人間이 應用하고 活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自然속에는 또 얼마만한 法則이나 原理가 未發見된 채로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것은 無限이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人間이 發見해 놓은 것은 無限에 比하면 극少數에 불과할 것이다. 未發見으로 自然속에 있는 原理와 發見되었어도 應用못한채 있는 原理 그 自體 이것이 李退溪가 말한 「理先」의 意味이다. 따라서 그러한 原理는 經驗의 世界와 關係되었을때 비로소 價値가 있게 됨으로 「理先」의 價値는 자연히 空虛를 免치 못한다.

自然法則의 경우와 같이 人間界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人間行爲의 道理도 個個의 人間行爲와 關係없이 먼저 存在하는 人間道理나 規範이었다. 이것이 理先인 것이다. 이를테면 人間の 道理는 어느 特定人의 生死와 關係없이 存在한다. 子息이 出生해서 비로소 父子間의 道理가 생기지만 그 道理는 父子의 關係가 成立되기 前부터 嚴存하며 反對로 死亡의 경우도 그러하다. 特定人이 死亡했다고해서 父子의 道理가 消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父子, 兄弟 또는 夫婦등 特



## 李退溪哲學에 있어서의 理氣不可分의 意味

定人の 關係變化와는 相關없이 嚴然히 存在하는 道理, 이것을 李退溪는 「理先」이라고 한 것이다. 이 「理先」(無關의 理)은 父子·兄弟·夫婦 등등의 現象(氣)과 同時에 「그속에 넣어주는것」 즉 共在함으로서 (有關의) 理로서의 그 價値를 發揮하게 된다.

李退溪의 說이 理氣哲學에서 矛盾이라고도 생각되는 「理先」을 以上에서 考察하였거니와 이 理先說에 의해서 다음 5個項이 闡明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理를 認識함에 있어서 太初부터 存在하는 理 그 自體를 認定하고.

(2) 이 理는 그 自體서가 아니라 經驗界인 氣와 共在함으로서 비로소 所以然之故 所當然之則으로서의 主宰者가 되며.

(3) 氣와 共在하는 理는 어디서 왔느냐하는 理의 由來는 自然속에 太初부터 存在하고 있는 原理이며 또 人間界에 있어서 個個의 行爲를 超越한 普遍的인 道理 혹은 道德律에서 온것이다. 그러므로 眼前에 生成變化하는 事象인 氣의 主宰者로 될수 있다.

(4) 이런 意味에서 氣와 共在하는 理는 결코 抽象的인 假定이거나 단순한 論理的인 想定이 아니라 太初로부터의 法則 原理 또는 道理에서 由來된 實體이다.

(5) 氣의 主宰者인 理는 스스로 現象을 創出하거나 造作해내는 自己展開의 概念이 全無하다. 「動靜, 氣也」(朱子文集九四道夫錄)가 定理이므로 當然히 理에는 動靜이 排除된 그런 性格으로 理는 理이며 氣는 氣이면서 同中異 異中同으로서 共在한다.

以上에서 考察한바 李退溪哲學에서의 理와氣는 事象에 發展體系를 이루는 原理가아니라 當面한 事象을 說明하는 原理로서의 體系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 Ⅶ. 不可分의 意味(主理主氣)

李退溪哲學에서 理氣不可分의 特性은 「主理主氣」라고 하는데 있다.

한편으로 理를 主로해서 理라고 말한 것이요 한편으로는 氣를 主로해

서 氣라고 말한것 뿐입니다.<sup>(12)</sup>

이렇게 主理 主氣에는 물론 理氣가 共在하고 있다는 同中異하는 가운데 理가 主, 氣가 主로 되는 狀相을 意味한다. 여기의 「主」에 관해서는 動詞的 用法으로 「主로된」이다. 理氣가 共在하는데서 上述한바 動靜은 氣에 속함으로 生滅變化하는 거기에는 자연히 強弱의 循環이 있음은 말할나위도 없다.<sup>(13)</sup> 強弱이 循環하고 流動하는 氣에 의해서 理는 隱顯하게 될 것인바 氣弱이면 主理이요 反對로 氣強이면 主氣의 狀相이 展開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主理 主氣를 李退溪는 理顯 또는 理隱이라고 하였다. 眼前의 모든 事象은 窮極의으로는 氣의 動靜에 의한 理의 顯·隱일 뿐이다.<sup>(14)</sup> 이러한 主理主氣說에 의해서 李退溪는 理와 氣가 必然的인 關係가 아님을 立證해 주고 있다. 主理主氣說을 좀더 考察해 보면

(天地之性)은 理만을 指稱할수 있으니가 氣質之性이 비록 理氣가 함께 (共在)했다하더라도 어찌 氣를 가리켜 말할지 못하겠습니까.<sup>(15)</sup>

天地之性の 成立은 理氣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그것을 理라고만 하는것은 氣가 無力하여 理가 顯(主理)하니가 理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 氣質之性도 물론 理氣에 의해서 成立되는데 氣가 強하면 理가 隱(主氣)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氣라고만 할 뿐이다. 李退溪는 孔子의 性, 孟子의 性 그리고 周濂溪의 太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 한다.

(12) 退溪先生文集卷十六答奇明彥(上同)

一則理爲主, 故就理言. 一則氣爲主, 故就氣言耳. 四端非無筭, 而但云理之發. 七情非無理, 而但云氣之發, 其義亦猶是也.

(13) ① 朱子文集卷四十五

蓋天地之間, 只有動靜兩端循環不已, 更無餘事此之謂易, 而其動靜, 則必有所以動靜理焉. 是則所謂太極者也.

② 「主」에 관해서는 「主宰」로 解釋한 例가 있다.

成樂動氏는 번역版 「韓國의 大思想全集」(1972年 同和出版社刊) 10卷 李滉 234P下, 同 240P上에서 「主」를 主宰로 새기고 있다. 그렇다던 理가 主宰者인데 「理를 주재」한다면 또 다른 主宰者를 認定하는 것이므로 「主」는 主宰가 아니라 「主로」라고 새김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14) 理가 氣의 動靜으로 말미암아 顯現된다는 說에 관해서는 宋統慶論文 「李退溪의 理氣互發說研究」參照(上同 「韓國의 哲學」第2號所收 1974.12)

(15) 退溪先生文集卷十六答奇明彥(第二書)

然猶可以專指理言, 則氣質之性, 雖雜理氣, 寧不可指氣而言之乎.

李退溪哲學에 있어서의 理氣不可分の 意味

孔子는 相近相遠의 性을, 孟子는 耳目口鼻의 性을 말한 것은 理와 氣가 서로 相成(共在)한 가운데서 氣의 한쪽(主氣)만을 말하여 다만 氣라고 한 것입니다.<sup>(16)</sup>

이와같이 主理主氣說로 解釋하고 있고, 主氣 以外 主理를 다음에 보기로 한다.

옛날 孔子에는 純善成性論이 있었고 周謙溪에는 無極而太極이 있었는데 이說은 다 理氣가 서로 따르는(共在)가운데서 다만 理만을 지적한 것입니다.<sup>(17)</sup>

여기서 問題提起의 序論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 理와 氣는 不可分이지만 그 不可分인 故로 理와 氣가 必然的인 關係에 있는 것이 아님은 主理主氣說로 명백해졌다. 그런데 理氣共在의 世界에는 善과 惡으로만 直截될 뿐인가.

理가 顯하고 氣가 따르면 善이고 氣가 揜하여 理가 隱하면 惡입니다.<sup>(18)</sup>

라고한데서 알수 있드시 理가 顯하는 만큼 또 理가 隱되는 만큼의 善과 惡이 있게 된다. 다시말하면 主理로 되고 主氣로 되는 만큼 善惡이 있게 된다. 이것을 李退溪는 「積漸純熟」이라 하였다.<sup>(19)</sup> 漸次를 쌓아서 純粹하게 익는다고하는 여기에 眞理 또는 善에는 漸次的으로 到達될 수 있다는 方法論이 成立된다. 이렇게 李退溪의 方法論은 漸進法임으로 主理主氣는 결국 漸進法에 의한 實現過程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退溪에 急進的이거나 禪과 같은 直觀的인 思想이 없는것은 眞理探求의 方法이 根本的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16) 退溪先生文集卷十六答奇明彥(上同)

孔子言相近相遠之性。孟子言耳目口鼻之性。此皆就理氣相成之中，偏指而獨言氣也。

(17) 上同

周子有無極太極之說，此皆就理氣相循之中，別撥而獨言理也。

(18) 退溪先生文集卷二十五答鄒子中講目

理顯而氣順，則善。氣揜而理隱，則惡。

(19) 退溪先生文集卷十四 答李叔獻

虛人觀勿先執定於己見，積漸純熟，未可責效於時月，弗得弗措直以爲終身事業。

V. 結 語

以上으로 序論에서 提示한 問題인 李退溪의 理氣說에서의 「不可分」과 理先의 意味를 살피보았다. 그 不可分은 理와 氣의 關係에 必然性을 不認하였고 또 理先은 論理的인 想定이거나 抽象的인 假定이 아니라 太初부터 實存하는 原理에서 오는 實體였다. 이러한 解釋을 基本으로 하여 愚見을 약간 敘述하고 結尾로 삼을까 한다.

因果法則의 必然이 物理學의 分野에 있어서도 如斯한 條件下에는 반드시 이런 現象이 일어나는 形式으로서의 因果法則이 成立안되는 경우가 널리 發見되고 있다. 그것은 量子力學分野에서 量子力學이 對象으로 하는 現象은 基本的인 意味에 있어 嚴密한 因果律의 適用을 받지 않는다. 어떤 現象을 生起시키는 條件은 確率的으로 表現될 뿐이라고 한다.<sup>(20)</sup> 이래서 現象究明이 因果法則으로서는 그 絕對性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自然科學이 自然法則을 發見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自明하게 될것이다. 自然法則의 發見은 말할 나위없이 實驗에 있다. 實驗이란 自然現象을 人爲的으로 一定한 條件下에 듬으로써만이 可能하다. 이렇게 自然科學에 의해 法則이 發見된다는 그 自體가 自然現象의 過程이 法則에 의하여 必然的으로 決定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실 自然科學이 發達하면 그만큼 우리는 自然現象의 過程을 人間이 願하는대로 變化시켜나갈수 있다는 것을 示唆한다고 할 수 있다. 人間이 뜻하는대로 自然法則을 利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自然現象의 過程에 必然性이 存在않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人間行爲에서도 같다. 人間行爲에 있어서 行爲나 意志가 外的인 原因에 의해서 必然的으로 決定된다고 主張할수 있겠는가. 因果의 必然性을 絕對的이라고 確信할수 없는 것은 人間行爲에 있어서도 같다. 神이 아닌 人間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行爲를 擇하지 않으면 안된다. 人間の立場에서 限 意志의 自由는 人間の立場의 事實로서

(20) 量子力學分野에서 因果律의 適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는 Dirac, Foundation of Quantum Mechanics 3rd Oxford Univ. 1960版參照.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는 否定할수 없을 것이다. 人間이 살아야 하는 以上 어떻게든 自己가 스스로의 行爲를 決斷해 가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行爲를 할려고 하는限 어떻게 行爲해야 하는가의 問題에 直面한다. 이런故로 人間行爲의 選擇도 우리는 그 自身이 自由로 行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실, 理氣哲學에 있어서는 人間行爲에 不可避의 遵則이 있다고 하는것이 事實이다. 이런 事實이 「理氣不可分」으로 表現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그래서 이 不可分の 解釋에 重要함이 있다고 하는것이다. 만일 不可分을 必然的이라고 解釋한다면 다음과 같이 說明된다.

비록 聖人の 마음이라도 일직이 感하는 것이 없이 自動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반드시 感하는 것이 있어서 動하지만 感하게 되는것(對象)은 外物이다. 왜냐하면 父에 感하면 孝가 動하고 君에 感하면 忠이 動하고 兄에 感하면 敬이 動한 즉, 父며 君이며 兄이라는 것이 어찌 이 心中에 있는 理이 겠는가. 天下에 어찌 感함이 없이 心中으로부터 自發하는 情이 있으랴.

이제 만일 外感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心中으로부터 自發하는 耡를 四端이라고 하면 이것은 父없이 孝가 發하여 君없이 忠이 發하며 兄이 없이 敬이 發한다함의나 어찌 사람의 眞情이라. (原文은 註3의 ③參照)

分析해보면 父에 대한 孝는 必然的이 되며 外的인 對象을 原因으로 行爲로서의 結果는 恒常 一致되지 않을 수 없으니 感覺의 必然論 또는 因果論으로 陷入된다. 主觀과 客觀은 늘 一致되겠끔 決定되어 있으니 意志自由의 餘地도 없다. 孝를 위한 人間努力은 無用이 되어지며 그런 데 人間努力없이 孝가 實現된다고 함은 想像도 할 수 없다. 上例文에서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行爲를 한 후에 그 行爲는 必然的으로 決定되어 있다고 말 할수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必然性은 完全히 無內容이 될뿐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스스로 어떻게 行爲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行爲를 選擇해가야 하는것이므로 自己가 어떤 行爲를 行하겠끔 決定되어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런 意味가 李退溪의 主理主氣說의 眞意이며 따라서 不可分の 內容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생각컨데 人間은 어떻게 스스로의 道理를 다하게 되느냐 하는 물음

에 다만 人間이기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根本的인 答이 될 수 있겠는가. 만일 그 答을 肯定한다면 禽獸는 禽獸이기 때문에 行動한다해도 아무런 不合理的 答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러한 人間과 禽獸의 두 答에는 根本的인 差異를 認定할 수 없다. 그러나 人間行爲가 主理로도 또 主氣로도 되는 거기에는 意志의 自由를 認定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故로 人間은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根據를 갖게 된다.

李退溪 哲學에 있어서 居敬窮理라는 人間努力은 실로 이와같은 理論的 根據위에 構築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以上과 같이 볼 때 李退溪 哲學에서 理氣不可分의 關係에는 必然性이 全的으로 否認되고 主理主氣되어지는 그러한 不可分인 것이다. (끝)